

# 사과는 대구? 이젠 '강원도'

지구온난화로 기온 상승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식량 지도가 뒤바뀌고 있다. 사과·복숭아·감귤 등의 재배지가 강원도로 북상하고 남부지방에선 파인애플·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이 자리를 잡는 추세다.



▲ 사진=shutterstock

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가을장마와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에 배추가 썩는 일이 많았고, 코로나19로 식당과 학교급식 물량마저 줄어들어 가격이 평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농촌진흥청은 기온 상승이 이어진다면 2090년 강원도 태백에서 고랭지 배추 재배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30년(1991~2020년) 동안 과거 29년(1912~1940년)에 비해 연평균 기온이 1.6도 상승했다. 기온이 상승하면 폭염·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병충해가 늘어나 농업 분야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21세기 말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4.7도 올라 아열대 기후로 변하게 되면 쌀 수확량이 25% 이상 감소할 수 있으며, 옥수수 10~20%, 여름감자는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지난 2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군 관내 사과 재배지는 2010년 50ha(16농가)에서 지난해 250ha(319농가)로 최근 10년 사이 5배나 늘었다. 과거 대표적 사과 생산지인 대구, 충남 예산, 경북 안동 등 남부지방에선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점차 사과 재배가 어려워지고 강원도 고랭지가 사과 재배의 적지가 된 것이다.

반면 무·배추 등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곳은 2010년 2025ha에서 지난해 995ha로 반 토막 났다. 특히 올해 강원도 고랭지 채소 재배 농가는 코로나19

# 상대 빈곤율 OECD 4위



▲ 사진=shutterstock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지난 25일 '아시아경제'가 OECD 발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인 37개 회원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국민 100명 중 16.7명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못 벌어들인다는 뜻이다.

절대적 빈곤이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하는 반면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91만4,000원 ●2인 가구는 154만4,000원 ●3인 가구 199만2,000원 ●4인 가구 243만8,000원이다.

이 발표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1위), 미국(17.8%·2위), 이스라엘(16.9%·3위)뿐이다.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1.1%보다 5.6%포인트나 높으며, 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캐나다(11.6%), 프랑스(8.5%) 등 주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핀란드(6.5%)나 덴마크(6.1%), 아이슬란드(4.9%) 등 북유럽 국가과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인구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 상대 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를 수 있다

앞으로는 군 장교와 부사관처럼 병사들도 머리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간부와 병사에게 각기 달리 적용했던 두발 규정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교·부사관은 머리를 기를 수 있는 '간부표준형'과 머리카락을 짧게 쳐올리는 '스포츠형'(운동형) 두 종류 가운데 선택 가능했다. 하지만 병사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해 왔다.

지난 2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가까운 시일 안에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로운 조치는 막바지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 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육해공군은 장교와 부사관과 달리, 병사에



▲ 사진=shutterstock

게는 짧은 머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기본적인 위생 관리와 부상 상황에서 신속한 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명분을 뒀다.

육군은 병사들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cm 내외,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 이내로 규정해 해·공군보다 심하게 제약해 왔다.

해병대는 간부에겐 앞머리 5cm·상단 2cm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겐 앞머리 3cm·귀 상단 5cm 이내의 '상륙 돌격형'의 두발 규정을 적용해 왔다.

두발 규정 차별이 철폐되더라도 가발 착용과 머리 염색은 현행 부대관리훈령에 근거해 금지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모 장병들의 가발 착용과 흰색 머리가 많은 장병들의 검은색 염색은 허용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